



“아빠! 나도 해보자”

보기만 해도 절로 침이 넘어가는 탄하는 관람객들도 많더군요.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보니 얼마나 즐겁고 신기하겠습니까. 정신이 없을 겁니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07 광주국제식품산업전’ 보러 가자며 엄마 손에 이끌려 올 때 만 해도 물렀을 겁니다.

마지못해 와다가 눈 앞에 펼쳐진 ‘먹거리’에 휘둘그레진 꼬마의 얼굴, 해맑은 모습입니다.

다른쪽에도 금방이라도 손을 뻗 치고 싶은, 다크 초콜릿, 치즈, 카카오 등으로 만든 케이크에 프랑스의 바케트·독일의 호밀빵·미국의 베이글 등 많았습니다. 눈을 떼지 못 하더군요.

“아까워서 어디 먹겠어”라며 감

어른이나 아이나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싶어 입이 벌어지고 밥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이가 사달라고 조를 것 같은지 엄마는 자꾸 다른 곳으로 손을 잡아 줍니다. 아속하다는 생각도 들 것 같네요.

결국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예쁜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도 하겠다며 떼를 쓰며 나서더군요. 뺨에 생크림을 바르다 얼굴에 묻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 케이크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조심스럽게 직접 생크림을 바르며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끝까지 행복했을까요. 이 케이크를 통째로 먹으며? /최현배기자 choi@

I love MY student



나정희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으로 술렁거린다. 학생들만 설레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인 듯 싶다.

내가 맡게된 학급은 영광 홍농초등학교 5학년 4반 24명의 학생들이다. 특히나 신지도라는 완도의 작은 섬에서 학교 만기를 마치고 관외로 전입한 나에게 영광 홍농초의 학생들은 삼아이들과는 다른 느낌으로 와닿았다.

그러던 어느날 국어시간에 지선이란 아이가 발표를 하게 되었다. 지선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채 책상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슬슬 눈치를 보던 아이들이 하나 둘 “지선이는 말 못해요.”, “지선이는 원래 발표안해요.” 하는 것이다.

“왜?” “4학년때도 아무말 안했어요.” “형상시는 말하는데, 발표할때는 못해요.”

지선이는 이미 얼굴이 홍농처럼 새빨개져서 고개를 뚝 숙인채 눈물을 똑똑 흘리고 있었다.

아마도 발표공포증인 듯 싶어, 지선이를 달래서 자리에 앉혔다. 그 후로는 지선이가 발표할 때가 오면 자연스레 다른 아이들이 발표를 하게 되었다. 말이 없다보니 교우관계도 한정되었고 4학년때도 마치 유령처럼 있었다고 했다.

그래도 발표하는 상황만 제외하고는 친한 아이들하고 말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해서 보고서도 곧잘 잘 작성하고 참석실한 아이다.

그러던 어느날 사회시간에 모둠별로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지선이가 앞으로 나왔다. 앞으로도 나오지 않던 지선이가 스

지선이와 피자 세판

스로도 노력하고 모둠 친구들의 도움으로 칠판앞으로 나와서 다른 친구들이 발표할 때 말없이 옆에 서 있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기뻐서 나도 모르게 “우리 지선이가 앞에 나왔네!” 하고 말을 했다.

우리 반 아이들은 와아~! 탄성을 지르며 격려의 박수를 힘껏 쳐주었다. 순간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과 지선이의 노력에 기습속에서 무엇인지 따뜻한 감정이 수채화처럼 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다.

“지선이가 정말 큰 용기를 내었구나, 박수를 쳤던 너희들이 착한 마음도 너무 예쁘다. 앞으로 지선이가 앞에 나와서 얘기만 해도 선생님이 큰 피자 세판을 사주겠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아다인었다. 피자 세판이면 우리 반 아이들이 피자를 한 조각씩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그럼 발표를 하면요?”

“그땐, 모둠별로 피자 한 조각씩 사줄꺼야.”

아이들은 지선이를 연호하며 다시 한번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지선이는 일기장에 “부담스럽지만 열심히 노력할께요.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적어놓았다.

그 후 발표할 때가 되면 우리 반 아이들은 열심히 지선이를 격려해주었고 드디어 사회시간에 지선이는 조사보고서를 작지만 미안하게나마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약속대로 아이들은 라지 피자를 한 조각씩 풀리와 함께 맛 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지선이는 한층 밝아진 표정으로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있다. 아직 발표를 잘 하자는 못하지만 주 반장할때는 차렷, 선생님께 경례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젠 주목을 받으면 웃지 않는다.

요즘 교실봉파니 학교폭력이 안 좋은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순수한 것 같다. 우리 교육이 이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좀 더 일깨워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매일 아이들의 웃음과 해맑은 얼굴이 있는 학교로 출근을 한다. 〈영광 홍농초등학교 교사〉



뉴스퀴즈 89·90회 나지영씨 1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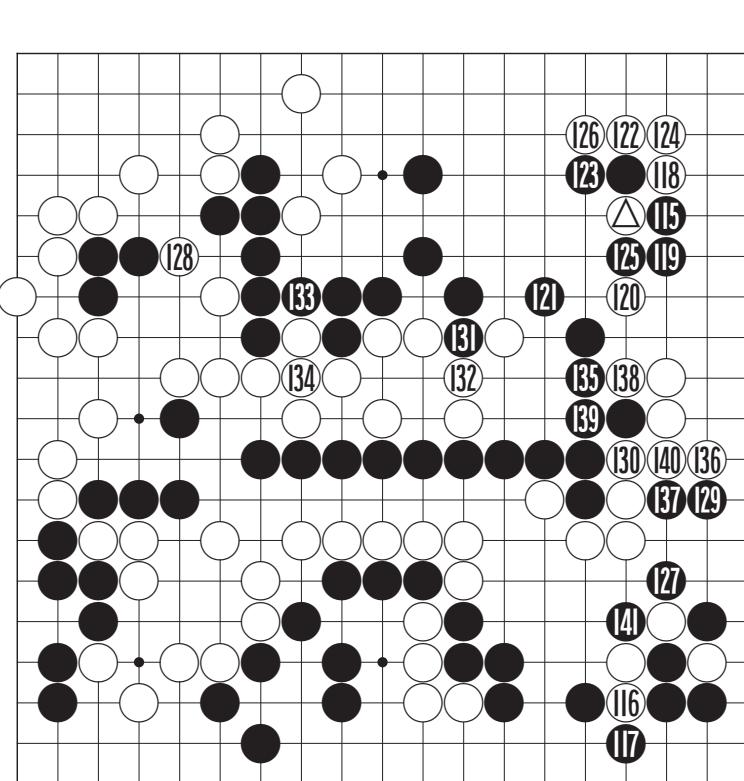
광주일보가 실시한 89·90회 뉴스퀴즈 추첨 결과, 나지영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나씨는 26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89·90회 뉴스 퀴즈에는 엽서와 편지로

376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나지영·광주시 북구 양산동
2등 ▲유선아·광주시 북구 두암동



제3회 전국 아마최강 결승전

필사적인 수내기 7보(115~141)

백 문문룡 7단 黑 문병권 6단

백 스가 에 대한 공격이다. 이럴 때 흑도 조심하세요. 보통 때라면 ‘참고고’의 의식한 백 1로 귀족을 느는 것이 정수이나 문홍 7단의 승부수인데 문병권 6단은 별로 120이 교묘한 선수가 되어 126까지 귀를 도려내서는 크게 성공한 모습이다. 이 정도면 역전이 아닐까 생각했으나 계산해보니 아직도 흑의 우세에는 변함이 없다. 그만큼 하번에서의 피해가 컷던 것이다.

문병권 6단은 귀를 내주고도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127부터 141까지 정확한 끝내기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 60초 1회. 우승상금은 1억5천만원이며, 연승상금은 3연승할 경우 1천만원,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1천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바둑소식

조한승 9단, 농심배 탈락

조한승 9단이 26일 열린 제9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2차전 첫 대국(제5국)에서 중국의 왕시 9단에게 302수 끝에 백 11집 반패했다.

왕시 9단은 이날 대국에서 한국의 두 번째 주자인 조한승 9단을 제압, 3연승을 질주했다. 홍민표 6단의 1차전 탈락에 이어 조 9단 미자 낙마함에 따라 한 국의 잔여병력은 이창호 9단, 박영훈 9단, 복진석 9단 등 3명으로 줄었다.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 60초 1회. 우승상금은 1억5천만원이며, 연승상금은 3연승할 경우 1천만원,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1천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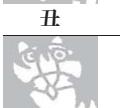
知天命의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7일(음 10월 18일 乙丑)



36년생 익 것으로 달성이 일어날 소망이 많다. 49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니 친용하며 살아라. 60년생 처녀 남편이困境에 처할 수 있다. 71년생 생나라에서 푸짐이 발생한다. 84년생 생활이 편리해지니 부부간의 충돌으로 이기운다. 행운의 숫자: 18, 44



37년생 가정의 不和와 부부간의 언쟁은 雙方過失. 49년생 부부간의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 61년생 勇氣 있게 전진해도 無理가 있고 좋은 결과가 생길. 73년생 자녀로 不便은 있으나 어렵지는 않다. 85년생 모든 일이 길사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14, 16



38년생 生, 傳, 生, 聞전에 형상이나 근친간의 말썽이 빨 수 있으나 자신을 잘 살피라. 62년생 遊興 속에 虛歲月를 恨歉한다. 74년생 부부일전이 聚想되니 서로 사랑한다. 행운의 숫자: 22, 35



39년생 모든 일이 즐겁게 시작 된다. 51년생 부부 및 주변의 소사이에 紛爭이 일어날 수도 있다. 63년생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보니 모든 것을 實利為主로 정리하라. 75년생 빛밖의 因緣을 주의하라. 행운의 숫자: 2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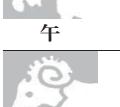
40년생 空文書하고 눈물 날 수도 있으니 둘다리로 두드리라. 52년생 慢消渴症이나 나타나니 손아래사람에게 내 것을 주어라. 64년생 빛일을 마무리 할 사람이 없다. 76년생 生경이 남아 있다. 행운의 숫자: 24, 43



41년생 빛 같은 계획이繼續 이루어진다. 53년생 부하의 협조로 부가적인 짐을 덜어주니 고맙게 생각된다. 65년생 말을 풀어놓는가 벼우나 마리리가 시원치 않다. 77년생 여성은 맘만 편 괜찮은 사람에게 諳諂하라. 행운의 숫자: 17, 31



42년생 같은 조용하지만 속 고통은 있다. 54년생 얼드레 눈물 날 일이 혹 있을까 걱정된다. 66년생 주변의 달콤한 許諾에 속지 마라. 78년생 안도의 숨을 풀리나 再充電하고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09, 43



43년생 幸平한 하루나 苦續數는 있다. 55년생 큰 苦生은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일도 있는 것은 아니다. 67년생 業務上 고민이 생기니 賢明하게 처신해야 한다. 79년생 生후에 급전을來는 금풀이다. 행운의 숫자: 11, 30



44년생 大苦는 없으나 周邊의 아픔들이 보인다. 56년생 生와 출사장은 못해 제로고로 피워하라. 68년생 生은 投資하는 것이 좋으며 新規事業은 피하라. 80년생 希望의 새 아침을 만나는格이다. 행운의 숫자: 01, 42



45년생 朴春이니 더욱 더 잘 가꾸라. 57년생 順應로운 진행은未知數다. 69년생 生로운 文書와 뜻밖의 收入이 발생하나 心的苦痛은 없으리라. 81년생 智慧 있는 先輩와 相談하고 興상 行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23, 41



46년생 大苦는 없지만 得蔽도 없다. 58년생 賀 일이 많으니 健康을點檢해 보라. 70년생 친지간의 흐름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72년생 自己開發에 計劃를 세우고 조율하니 추진하면 발전은繼續된다. 행운의 숫자: 20, 34



47년생 保溫은 絶對 금물이고 부부간에 대화를 해야 할 때다. 59년생 生서는 품평히 살펴서 確認해야 하리라. 71년생 시간을 내어 周邊을 살펴보라. 83년생 남자는 妻家 賽가족에게 安否를 물어보니 哭하라. 행운의 숫자: 2, 32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브랜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042>

I want to get a haircut, please.
머리 좀 잘라 주세요.

A : I want to get a haircut, please.
B : Please be seated.
A : You're very busy. How long do I have to wait?
B : It's won't be long, sir. About ten minutes.

A : 이발 좀 해주세요.
B : 앉으십시오.

A : 정말 바쁘시군요.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B :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손님. 약 10분 정도요.

* I want to ~ : ~해 주세요.

* get a haircut : 이발하다

* be seated : 앉다

* It's won't ~ : ~하지 않을 겁니다.

* about + 수사 : 약 ~

오후요우 니혼고 <1042>

実(じつ)は私(わたし) 'かなづちなんですよ。
 사실은 저 맥주병이예요

A : ななみさん, 夏(なつ)がおわる前(まえ)に海(うみ)へいきませんか。
B : あのう、実(じつ)は私(わたし) 'かなづちなんですよ。
A : えっ、そうなんですか。意外(いがい)ですね。

A : 나나미씨, 여름이 끌나기 전에, 바다에 가지 않을래요?
B : 저기, 사실은 저 맥주병이예요.
A : 네, 그래요? 의외네요.

かなづち : 본래